

## 12/13(화) 시편(4 권) 묵상 12

### 시편 100:1-5

**말씀 읽기와 묵상** -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.

시편 100편은 짧지만 큰 주제를 담고 있고 기독교 전통에서 다양하게 애송된 말씀입니다. 특히 성공회 찬송가와 기독교 복음성가로도 만들어질 정도로 사랑받아 온 시입니다. 본 시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-3절(예배의 첫 부름과 회중의 응답) 그리고 4-5절(예배의 두번째 부름과 회중의 응답)입니다.

#### 예배의 첫 부름과 회중의 응답

첫째로 시인은 온 땅을 대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자고 선포합니다(1절, “**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.**”). 여기서 온 땅은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만민들을 뜻합니다. 이처럼 구약과 성경 말씀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(갈 3:14, “**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.**”; 갈 3:29, “**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.**”). 성경은 이처럼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말씀입니다. 둘째로 시인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자고 선언합니다(2절, “**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.**”). 2절에서 ‘여호와를 섬긴다’는 것은 크게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삶을 뜻합니다(수 24:14, “**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.**”). 그리고 작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의미합니다. 셋째로 시인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라고 선포합니다(3절, “**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.**”).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이십니다. 주기도의 말씀에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‘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’라고 부릅니다. ‘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‘우리’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대상이 온 세상과 민족이라는 것입니다. 즉 하나님은 그가 택하신 언약의 백성들을 그의 것, 그의 백성이라 말씀하시고 그들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. 이 모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목적과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.

#### 예배의 두번째 부름과 회중의 응답

시인은 두번째 부름에서 모든 언약의 백성들을 여호와의 성전으로 초청합니다(4절, “**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.**”). 구약의 성막과 성전은 제사장을 제외한 일반 백성들은 성전의 뜰인 제단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. 제사장만 유일하게 성소에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의 문과 궁정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을 송축했던 것입니다. 동시에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할 목적과 이유를 또하나 제시합니다(5절, “**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.**”).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. 또 주의 선하심은 그의 ‘인자하심’과 ‘성실하심’으로 구현되고 있습니다. 이처럼 하나님은 그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그의 백성들을 모든 역경에서 구원해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(출 34:6-7, “**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**

**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.”).**

오늘 말씀을 묵상한대로 우리는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 그의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. 그 결과 성전의 뜰만 밟고 누리는 신앙에서 이제는 성전 안에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그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(성경 66권)과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즉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실현된 것입니다.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영적 부요와 특권을 누리면서도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?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‘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심’입니다. 존 파이퍼는 ‘선교란 예배가 없는 곳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일’이라고 했습니다. 오늘도 우리의 일상을 예배로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선하심이 풍성하시기를 원합니다. 또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살아가시길 소원합니다(벧전 2:9, “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.”).

**적용 -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?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.**

**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**

- 1. 적용의 기도:**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.
- 2. 미국을 위한 기도:** 미국의 위정자들과 정치, 경제, 외교, 특히 우크라이나 문제를 위해서도 중보합니다. 미국의 교회들과 신학교,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.
- 3. 교회를 위한 기도:** 오늘은 햄튼 4 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.
- 4. 선교지를 위한 기도:** 인도 임상순 선교사님을 위해서 중보합니다.